

호남권 코로나 백신, 이달말 개시한다

전담병원·중증치료병상·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우선 접종

22개 시설 대상 조선대병원 등 6곳에 예방접종센터 설치

호남권역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이달말 개시된다. 전담병원과 중증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 4000명이 우선 접종 대상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 부처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에 맞춰 늦어도 이달말부터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인 조선대 해오름관(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본격적인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역접종센터에는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행정·보안·구급인력 10명 등 모두 22명이 근무인력으로 투입된다.

이들은 지역별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맡고, 무엇보다 이달말부터는 지역 거점 전담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 400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우선 접종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센터는 광주에만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를 비롯해

▲동구 문화센터 ▲서구 영주체육관 ▲남구 다목적체육관 ▲북구 전남대 스포츠센터 ▲광산구 보훈병원 재활체육관 등 모두 6곳에 설치됐다.

우선 접종대상은 22개 시설 종사자로 광주는 빛고을전남대병원, 해아림 요양병원, 보훈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소방학교생활관 등 7곳, 전남은 국립나주병원, 목포의료원, 광양우리병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 생활치료센터인 호남센

터 등 역시 7곳이다.

전북은 순창요양병원 등 6곳, 제주는 제주대병원 등 3곳이다.

접종센터는 체온측정 후 문진표 작성구역, 접종구역,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 하는 관찰구역, 백신 보관이 이뤄지는 백신보관구역 등 모두 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2월 의료진 우선 접종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접종하고, 2분기(4~6월)에는 노인재가 복지시설 이용자나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분기(7~9월)에는 성인 만성질환자나 50~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 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영업끝난상가침입, 종이·빈병 훔친 3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영업을 끝난 상가에 무단 침입해 종이·빈병 등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광주 도심 일대 술집·식당 등지에 들어가 총 13차례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주류 포장 상자, 빈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훔친 종이·빈병 등을 재활용 처리 업체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방역지침으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마친 술집·식당의 문이 열린 간이창고 또는 테라스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절도 행각을 하다가 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는 출소 한 달 만에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이고 재범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나주, 출근길 화물차·승용차 4중 추돌...2명 경상

9일 오전 8시27분 전남 나주시 동수동 편도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으로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시의원 항제독감' 보건소 공무원 2명 벌금형

전남 목포시의원의 독감예방접종, 속칭 '항제독감'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는 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직원 B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직원 B씨가 시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과 백신반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CC-TV와 증인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이회 사무감사를 앞두고 독감예방접종은 문제의식 없이 관례적으로 이뤄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전력이 없는데다 접종 부자용이 없고, 공무원 신분엔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혹하다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7일 목포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 4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건소 과장이었던 A씨는 "B씨에게 지시했으나 접종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직원 B씨 또한 "의원들은 만났으나 예방접종은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한편, 법원은 독감예방접종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다"면서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야주택가서 문 열린 차량 침입해 금품훔친 40대 구속

광주 남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 일대 원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3대에서 150만 원 상당의 현금·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이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를 틈타, 과거 자신이 살았던 원룸 주변 주택가를 돌며 주차 차량의 문을 일일이 열어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지난 7일 A씨를 검거했다.

"오타 한자에 한대"...전남청소년미래재단 직장 괴롭힘 진정 제기

노조 "28명 중 15명 경험·매일 괴롭힘도 5명"



전남청소년미래재단 노동조합은 "오타 한 자당 한 대씩 맞는다" 등의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며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 해결을 촉구하며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상급기관인 전남도가 해당 문제에 대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은 지역 청소년에 대해 상담, 긴급구조, 청소년활동 정책·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남도의 출자출연 기관이다"며 "지난해 11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8명 중 15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또 "매주, 매일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데 응답한 직원도 5명이며 상급자 2인의 지위를 이용한 언어 폭력과 업무관련 괴롭힘이 대부분이었다"

고 설명했다.

괴롭힘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과도한 업무지시, 연차나 반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눈치,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 직급·경력·나이를 운운하며 무능력자 취급 등 다양하고 심지어는 '오타 한 자당 한 대씩 맞는다' 등 공개된 공간에서 인격모독성 발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년의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역설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생각해보는 적이 있는 사람 6명이다"며 "이같은 문제는 지난 2019년 노동청 신고가 됐지만 종속종결 결과 당시 일하던 노동자만 퇴사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집단감염 여진' 광주, 추가 확진 늘어...확산세 주춤

광주TCS국제학교·전북 육가공업체 관련 n차 감염

IM선교회 운영 미인가 교육시설, 전북 육가공업체 등 기존 코로나19 감염원과 연관이 있는 n차 전파가 잇따르면서 광주 지역 확진자가 6명 증가했다.

9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6명이 발생, 누적 환자가 1914명으로 늘었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6명 중 2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과 연관이 있다. 이들은 모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었다. 격리 해제를 앞두고 진행한 진단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연쇄 감염 양상을 띠고 있는 전북 육가공업체 관련 감염 사례(전북

1025번째 환자 접촉)도 3명 추가됐다. 이들 모두 북구 주민이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1911번째 환자는 감염 경로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광주에서는 TCS국제학교 관련 연쇄 집단감염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112명이 무더기 확진을 받은 이후 이달 1일까지 일일 확진자가 두 자릿수에 머물렀다.

최근 일주일 간 일일 확진자는 2월2

일 6명, 3일 12명, 4일 14명, 5일 12명, 6일 10명, 7일 7명, 8일 8명, 9일(오후 2시 기준) 6명 등으로 나타났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에 그쳐 감염 확산세가 주춤한 양상이다.

주요 집단 감염원별 확진자는 ▲TCS국제학교 133명 ▲안디옥교회 130명, ▲성인요락실 관련 55명 ▲에이스TCS국제학교 50명 ▲전남 738번 확진자 관련 16명 ▲예수소망교회(서구) 8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 272명 중 270명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다. 오유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